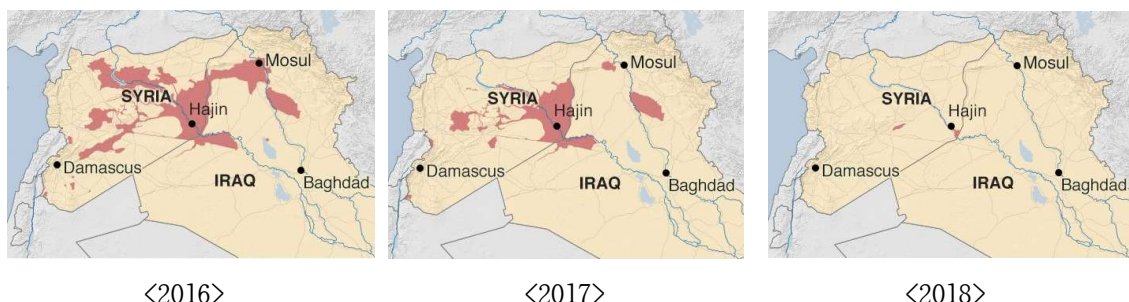
 <p>신종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</p> <p>http://www.emerics.org/</p> <p>2019. 02. 27. 아프리카·중동</p>	<p>「동향세미나」</p> <p>이슬람국가(IS) 세력 현황 및 전망</p> <p>작성 유광호 전문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·중동팀)</p>
--	---

- 연합군의 공습이 지속되면서 이슬람국가(IS: Islamic State)는 대부분의 점거지역을 상실하였으나, 테러 발생 수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.
- (점거지역)약 4년에 걸친 군사작전으로 연합군은 IS 점거지역의 98%를 수복함(그림1 참고).¹⁾
 - 연합군은 2017년 7월과 10월에 각각 IS의 양대 거점인 이라크 모술(Mosul)과 시리아 락카(Raqqqa)를 탈환한데 이어 2018년 12월에는 IS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시리아 하진(Hajin)을 수복함.²⁾
 - (수입)점령지역 축소에 따라 원유 생산 및 세금 징수가 어려워지면서 IS 자체 수입도 크게 감소함(그림2 참고).
 - 2017년 IS의 월평균 수입은 2016년 5,600만 달러 대비 71.4% 감소한 1,600만 달러를 기록함.
 - 현재 원유 생산 및 세금 징수에 의한 수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, 인질납치 등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.
 - (테러)반면 IS에 의한 테러 발생 수는 소폭의 증감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, 발생 지역은 주변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나타냄(그림3 참고).
 - 2017년과 2018년의 IS 테러 발생 지역을 비교해보면 이라크의 테러 비중이 크게 감소한데 반해 아프가니스탄, 리비아,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(표1 참고).
 - 단, 2016년 대비 2017년 테러 1건당 사상자 수는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, 그 이후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그림 1. IS 점거지역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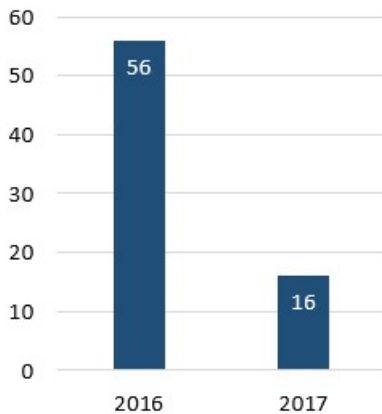
자료: BBC News.

1) 2014년 8월 이라크·시리아 내 IS 세력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, 영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연합군이 형성됨.

2) 이에 2018년 12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합군이 시리아 내 IS 세력을 사실상 격퇴했다고 선언하며 시리아 주둔 미군을 전부 철수시킬 계획임을 밝힘.

그림 2. IS 월평균 수입

(단위: 백만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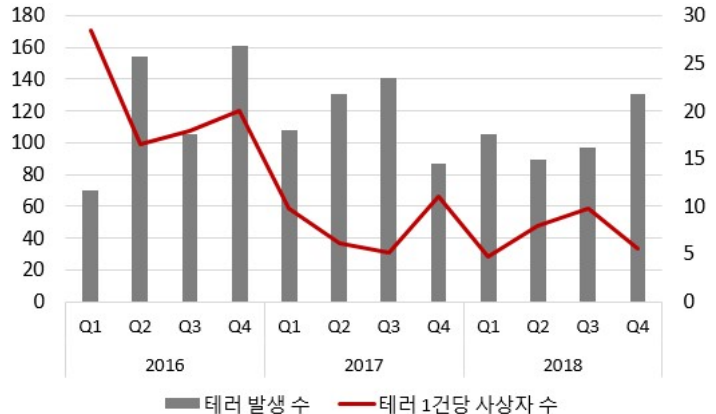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EIP.

그림 3. IS에 의한 테러 발생 수 및 테러 1건당 사상자 수

(단위: 건)

(단위: 백만 명)



자료: ESRI.

표 1. 지역별 IS에 의한 테러 발생 수

국가		2017		2018	
		테러 발생 수	비중	테러 발생 수	비중
중 동	이라크	262	56.1	175	41.5
	아프가니스탄	31	6.6	63	14.9
	시리아	38	8.1	56	13.3
	리비아	6	1.3	18	4.3
	이집트	47	10.1	15	3.5
	기타	37	7.9	33	7.8
	소계	421	90.1	360	85.3
아시아		29	6.2	29	6.9
사하라이남아프리카		6	1.3	27	6.4
유럽		8	1.7	4	0.9
오세아니아		2	0.4	2	0.5
북미		1	0.2	0	0.0
계		467	100.0	422	100.0

자료: ESRI

- 이렇듯 점거지역이 크게 축소된데 반해 테러 발생이 유지·분산되고 있는 이유로는 △ 테러, 납치 등으로의 IS 전략노선 변경, △정정 불안 지역으로의 거점 이동, △근거지를 상실한 외국인 대원들의 분산 이주 등을 꼽을 수 있음.
- 대규모 소모전으로 전투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IS의 전략적 노선이 전면전에서 게릴라성 테러, 요주인물 납치 등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.
 - IS 지도부는 최근 정국 안정화 국면에 있는 이라크에서의 세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정이 불안한 아프가니스탄, 리비아 등지로 거점을 이동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.
 - 이라크·시리아 내 근거지를 상실한 외국인 대원들이 본국 및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- 비록 IS 약세 국면이 향후 지속된다고 해도, 조직의 역외 분산 추세와 국제사회의 공조 약화 등으로 완전 소멸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-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국 혼란이 조금씩 해소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IS의 거점 이동 및 외국인 대원들의 분산 이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.
 - 이처럼 조직 전체가 소규모 단위로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력의 완전 소멸을 위해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.
 - 더불어 최근 정세는 역내 연합군 철군의 가시화, 중동 주요국 간 갈등 점증 등 IS 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약화되고 있는 형국임.
 - 리비아, 이라크 등은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, 재건사업 수주 등 현지 진출 기회가 큰 국가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우리 교민과 기업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점점 · 강화할 필요가 있음.
 - 2014년 리비아에서는 국내 16개사가 총 36개의 중대형 프로젝트(총 105억 달러 규모)를 진행하고 있었으나, 리비아 내전 등으로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모두 철수함.
 - 이라크는 IS와의 전쟁으로 총 457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으며, 피해 복구에는 총 8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. **EMERiCs**